

複合動詞에 관한 史的研究*

- 「まくる」를 中心으로 -

안지영**
nazue@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2 고전 텍스트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
|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 3.3 근대 자료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
| 3. 각 자료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 4. 마치며 |
| 3.1 사전류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 |

主題語: 복합동사(compound verbs), 변천과정(process of change), 전항동사(the former form of the compound verb), 후항동사(the latter form of the compound verb), まくる(makuru)

1. 들어가며

본고는 동사「まくる」가 포함된 복합동사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용 실태와 변천과정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동사와 동사가 결합한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능하다. 「教えてあげる」「書いておく」와 같이 「て」형으로 결합된 것과 「降りつづく」「聞きこむ」와 같이 동사의 연용형으로 결합된 것이 이에 해당된다.

본고에서의 복합동사란 후자를 가리키며, 특히 전항부의 동사(V1)와 후항부의 동사(V2)에 「まくる」가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종래의 복합동사 연구는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 의미의 복합동사들끼리의 비교고찰을 통해 의미관계와 결합상의 특징 및 분류를 중심으로 그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EST)(KRF-2007-362-A00019)

** 高麗大學 日本研究CENTER HK研究教授, 日本語學

「まくる」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기존의 복합동사 연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전향동사와 후향동사로 모두 사용되고 있는 「まくる」는 후향동사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후향동사에 중심을 둔 연구가 많으며, 「-まくり」의 용법과 분류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まくる」가 포함된 복합동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그 연구 범위 또한 현대 일본어에 한정되어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극히 부분적인 설명과 용례문만이 부가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으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개별 복합동사의 사적 연구의 출발점으로, 「まくる」가 포함된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그 성립 시기와 변화과정에 관한 사적 고찰을 행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시대별 복합동사의 결합 양상과 현대어로의 정착과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조사 자료 및 고찰 방법

일반적으로 「まくる」는 에도시대 경부터 복합동사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 및 「-まくる」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는 사전류에 의거하여 사용 시기를 유추해 보면 훨씬 이전인 것을 알 수 있다.

「まくる」에 관한 사적 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에 관한 초출로 볼 수 있는 기록은 『日本国語大辞典』¹⁾의 용례문으로 이하와 같다.

(1) 延争は朝廷で大ぜいの臣下と物を云てあらそう時はたれでまり云まくらうずやうないぞ²⁾

(玉塵抄 12)

『玉塵抄』은 1563년경 성립되었다. 따라서 「-まくる」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얻은 용례와 이하의 고전텍스트³⁾ 및 근대

1) 『日本国語大辞典』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他の動詞の連用形について接尾語のように用いる)動作を休みなく、また激しく行なう様子を表わす。盛んに…する。「言いまくる」「突きまくる」「書きまくる」など。

2) 하선은 필자에 의함.

3) 본 研究의 古典텍스트는 小学館(1997-2002)『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을 底本으로 하였다. 또한 작품 성립

신문과 잡지를 대상으로 하여 복합동사「まぐる」를 추출, 전체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竹取物語(9世紀末期頃) [2] 伊勢物語(平安中期) [3] 土左日記(935) [4] 大和物語(951頃) [5] 宇津保物語(972?) [6] かげろふ日記(974) [7] 落窪物語(10世紀後半?) [8] 源氏物語(平安中期成立) [9] 枕草子(平安中期成立) [10] 紫式部日記(1010頃) [11] 和泉式部日記(1010頃) [12] 堤中納言物語(1055) [13] 更級日記(1059頃) [14] 大鏡(1134?) [15] 今昔物語集(12世紀?) [16] 夜の寢覚(平安後期成立) [17] 狭衣物語(1060?) [18] 栄花物語(1028?-1107?) [19] 梁塵秘抄(1179年頃) [20] 住吉物語(1221頃) [21] 將門記(10世紀半ば) [22] 浜松中納言物語(平安後期) [23] とりかへばや物語(平安後期) [24] 方丈記(1212) [25] 平家物語(1220?) [26] 宇治拾遺物語(1221頃) [27] 保元物語(1318?) [28] 徒然草(1329以降) [29] 平治物語(1446以降) [30] 曾我物語(14世紀前半) [31] 無名草子(1196~1202頃) [32] とはずがたり(1313?) [33] 十訓抄(鎌倉中期) [34] 沙石集(鎌倉中期) [35] 太平記(1370頃) [36] 狂言集(中世) [37] 謡曲集(中世) [38] 義経記(室町初期) [39] 室町物語(中世) [40] 松浦宮物語(室町初期) [41] 名草子(近世) [42] 浮世草子(近世) [43] 御伽物(近世) [44] 井原西鶴集(近世) [45] 近松門左衛門集(近世) [46] 浄瑠璃集(近世) [47] 西山物語(1768) [48] 雨月物語(1776) [49] 春雨物語(1808) [50] 黄表紙(近世) [51] 洒落本(近世) [52] 滑稽本(近世) [53] 人情本(近世) [54] 東海道中膝栗毛(1810-1822) [55] 狂歌(1810-1822) [56] 読売新聞[1874-1925] [57] 太陽(総合雑誌)[1895年, 1901年, 1909年, 1917年, 1925年]

조사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 「まぐる」와 관련된 용례를 모두 추출한다. 수집된 용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며, 이에 대한 고찰에 앞서 현대 일본어에 있어 복합동사 「まぐる」의 의미와 분류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것은 현대어에 사용되고 있는 의미용법과 고전 텍스트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례와의 비교·고찰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수집된 용례문의 고찰을 통해, 각 표현의 특징을 고찰하고 복합동사로의 사용 경향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 표시하였으며, 여러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 全集類는 대략적인 시기를 제시하였다.

3. 각 자료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여기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전류, 고전 텍스트 및 근대 신문기사와 잡지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각의 자료별로 나누어 그 특징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3.1 사전류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일본어 동사「まくる」는 크게 본동사와 보조동사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사전⁴⁾에 나타나 있는 의미 용법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사전류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日本 国語大辞典	大辞林	大辞泉	ベネッセ 表現読解 国語辞典
本 動 詞	物の端を巻いて上に あげる。まきあげ る。かきあげる。 はぐ。はがす。	端をまいて上げる。 また, はぐ。	物の端を外側へ巻き ながら上へあげる。	巻くようにして上げ る。
	重なっている紙など を一枚ずつ裏返す。 めくる。	紙などを裏返す。め くる。	おおっているものや 重なっているものを はがす。めくる。	重なったものをめく る。
	追いのける。追いち らす。追いたてる。 のける。	追い散らす。追いま くる。	追い立てる。	
	(「怪我(を)まくる」의 形で用いて)「する」 의意をののしってい う。しくさる。	「する」をののしって いう語。		
		競輪で, 追い上げて 一気に追い抜く		

4) 각 사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사전의 기술 태도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번역하지 않고 원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고어사전에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1.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01)『日本国語大辞典』第2版, 小学館
2. 松村明編(2006)『大辞林』第3版, 三省堂
3.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12)『大辞泉』, 小学館
4. 沖森卓也他(2010)『ベネッセ表現読解国語辞典,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

	日本 国語大辞典	大辞林	大辞泉	ベネッセ 表現読解 国語辞典
複合動詞	(他の動詞の連用形について接尾語のように用いる)動作を休みなく、また激しく行なう様子を表わす。盛んに…する。「言いまくる」「突きまくる」「書きまくる」など。	(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むやみに…する。…しつづける。	(動詞の連用形に付いて)ずっとその動作を続ける。盛んに…する。	動詞の連用形に付く。さかんに…する。

각 사전의 기술 태도에 따라 약간의 상이점은 있으나, 이상의 기술을 보면 현대어에서 본동사로는 「袖をまくる」와 같이 ‘걸어 올린다’의 의미나, 「ページをまくる」와 같이 ‘넘기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복합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동사의 연용형’에 접속하여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연구로는 「-まくる」가 사용된 용례를 추출하여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다.

우선 야마다 미도리(山田みどり, 1991)⁵⁾는 「-まくる」가 포함된 용례를 채집 한 후, 『日本国語大辞典』의 의미를 기준으로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재분류하였다. 즉,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동작을 쉬지 않고 또는 격렬하게 행하는 것’⁶⁾과, 그 외의 의미로 파악되는 것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외의 의미로는 ‘동작 그 자체가 격렬하지 않는 것(動作そのものが激しくないもの)’⁷⁾, ‘수동 동작인 것(受身の動作であるもの)’⁸⁾, ‘의지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5) 山田みどり(1991)「『書きまくる』の限界」『聖徳大学研究紀要』人文学部. pp. 192-202

6) 暴れまくる、言いまくる、怒りまくる、動きまくる、歌いまくる、踊りまくる、撃ちまくる、売りまくる、描きまくる、追いまくる、押しまくる、泳ぎまくる、稼ぎまくる、語りまくる、勝ちまくる、感動しまくる、切りまくる、食いまくる、削りまくる、騒ぎまくる、叱りまくる、しゃべりまくる、滑りまくる、攻めまくる、焚きまくる、戦いまくる、たたきまくる、(腹を)たてまくる、食べまくる、使いまくる、突きまくる、釣りまくる、説きまくる、どなりまくる、捕りまくる、撮りまくる、投げまくる、逃げまくる、盗みまくる、飲みまくる、のりまくる、はしゃぎまくる、走りまくる、働きまくる、弾きまくる、ひろげまくる、(風が)吹きまくる、(法螺貝を)吹きまくる、ふざけまくる、ぶちまくる、吠えまくる、ほめまくる、掘りまくる、見せまくる、やじりまくる、破りまくる、やりまくる、わめきまくる

7) 集めまくる、植えまくる、(試験を)受けまくる、写しまくる、描きまくる、起しまくる、買いまくる、書きまくる、(電話を)かけまくる、貸しまくる、借りまくる、聞きまくる、採点しまくる、調べまくる、(手紙を)出しまくる、尋ねまくる、(番組に)出まくる、(歌を)作りまくる、(舞台を)見まくる、読

아닌 것(意識的に行っているわけではないもの)⁹⁾으로, 총 4가지 용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まくる」는 격렬한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들과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격렬한 느낌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외의 의미로 파악되고 있는 3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의미를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まくる」의 의미를 「일시 집중적이며 무제어적인, 때로는 한계를 넘어 대상을 휩쓸리게 할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 움직임. 내면에서 강하게 움직여져 가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다방면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다」¹⁰⁾라고 재정의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가 강한 무제어적 행동을 나타내는 어법들이 증가하면서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확산되어 갔으며, 그 과정에서 「-まくる」에 마이너스 경향적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히메노 마사코(姫野昌子, 1999)¹¹⁾는 ‘교과서·신문잡지’ 등¹²⁾에서 채집한 용례문의 분류를 통해 대인행동(対人行動)¹³⁾, 자기발산적 행동(自己発散的行為)¹⁴⁾, 정신상태(精神状態)¹⁵⁾, 운·불운의 상태(運不運の状態)¹⁶⁾, 사회적 현상(社会的現象)¹⁷⁾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まくる」는 대부분 사람의 행동에 관련된 어휘로 나타나며, 인간의 의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어휘와 결합하는 경향성을 보이나, 유일하게 자연현상을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한 「吹きまくる」를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 현상’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의인화되어 사용된 용례로,

みまくる

- 8) 耐えまくる、つなぎまくる、(球を)拾いまくる
- 9) 緊張しまくる、つきまくる、照れまくる
- 10) 「一時集中的で無制御な、時には限界を越し、対象をまきこむほどのエネルギーをもった動き。内面からつき動かされて行くことが多く、また、多方面にわたることもある」
- 11) 姫野昌子(1999)「「~たつ」、「~たてる」と「~まくる」『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pp.207-222
- 12) 『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에 제시되어 있는 용례 출전은 다음과 같다.
「教科書」: 教育出版『小学国語』1-6年(1973年)
「新聞」: 朝日新聞 読売新聞(1975~1998年)
「雑誌」: 『PHP』(1975~1998年) 등.
- 13) 攻めまくる、責めまくる、しごきまくる、いびりまくる、おどしまくる、ののしりまくる、どなりまくる、いばりまくる、押しまくる、追いまくる、あおりまくる、アジリまくる、やじりまくる、言いまくる、しゃべりまくる、(論を)ぶちまくる、電話をかけまくる、電話を入れまくる、声をかけまくる、頼みまくる、おだてまくる、ほめまくる
- 14) 遊びまくる、はしゃぎまくる、騒ぎまくる、はりきりまくる、暴れまくる、歌いまくる、踊りまくる、弾きまくる、走りまくる、すべりまくる、逃げまくる、打ちまくる、たたきまくる、突きまくる、投げまくる、(写真を)とりまくる、書きまくる、買いまくる、売りまくる、稼ぎまくる
- 15) 焦りまくる、あがりまくる、あわてまくる、うかれまくる、(W杯に)かぶれまくる、はまりまくる、のりまくる、照れまくる、怒りまくる
- 16) (運が)つきまくる、(商品が)当たりまくる、(キヤグが)受けまくる、(球を)外しまくる、ずれまくる、勝ちまくる、負けまくる
- 17) (魚が)とれまくる、売れまくる、目立ちまくる、吹きまくる

이러한 이미지가 사회적 현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¹⁸⁾. 또한 ‘정신상태’로 분류된 어휘들은 다른 용례에 비해 비교적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젊은이나 매스컴 관계자 사이에서 유행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속어적인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まくる」의 의미와 분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본동사와 복합동사의 상관관계에 주목한 이경수(2002)¹⁹⁾가 있다. 상호 교환이 가능한 유사표현인 「まくる」「たてる」「だす」「でる」를 중심으로, 「まくりあげる」「押しまくる」「喋りまくる」를 예로 들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まくる」는 ‘본동사와 전향동사는 상호관련성을 갖으나, 후향동사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まくる」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대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 「まくる」의 연구는 극히 드물며, 그 연구 또한 의미 용법에 따른 분류만이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고전 텍스트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앞서 살펴보았듯이, 『日本国語大辞典』의 용례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1563년경부터 「まくる」는 복합동사로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술한 야마모토²⁰⁾의 연구는 공시적 관점의 「まくる」에 관한 고찰이나, 「吹きまくる」「かいまくる」의 두 표현의 변천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즉, 「吹きまくる」의 경우 이미鎌倉時代부터 사용되고 있었으며²¹⁾, 歌論書인 『正徹物語』(1448頃)의 용례문을 제시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2) 上手の歌ごとくに心をつけて案じて心得ぬ所などあらば、人にとひ侍るべき也。曾などに逢

18) 해당 용례문은 다음과 같다.

- 1950年代のはじめ、アメリカにマッカーシー旋風がふきまくり、研究の自由がおびやかされた。
- 颯々とした秋の声がまるで掃いてゆくように河内平野を吹きまくっていた。
- 東京の高層地区などでは、わいのビル風が夢幻自在に吹きまくり、いちばん風害のつよいところだ。

19) 이경수(2002) 「복합동사와 본동사의 상관관계」 『일본학』 2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7-43

20) 前掲論文(5), p.194

21) 『日本国語大辞典』에 기술되어 있는 용례문을 통해서도 「吹きまくる」가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용례문은 다음과 같다.

- * 方丈記(1212) 「大きな辻風おこりて〈略〉三四町をふきまくる間に」
- * 広本拾玉集(1346) 「住吉に祈る心のすずしきはしでふきまくる庭の松風」
- * 日葡辞書(1603-4) 「ヤネヲ fujimacuru (フキマクル)」

ひても、やがて懷紙短冊もかいまくりて置いて、心得られねどもをけば、我歌の位のあがる事も有るまじき也。(正徹物語)

대부분의 주석에는 하선 부분이 「くりひろげる」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지만, 문맥상 어색하며 「かき」가 音便화된 것에 「まくる」가 접속하여 「どンドン書く」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기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가마쿠라시대 이전부터 「まくる」는 복합동사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후항동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자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 「まくる」의 전체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하의 <표 2>는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 추출된 용례문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복합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まくる」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고전 텍스트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작품명	전항동사	후항동사	형태
枕草子		1	かいまくりて
梁塵秘抄	1		捲りあげて
更科日記		1	かいまくりて
方丈記		1	吹きまくる
太平記	3		まくりたて
		4	追いまくり
		1	まくり付けて
	1		捲り落されて
	1		捲り落され
御伽物語		1	ひきまくり
	1		まくり捨て
野白内証鑑		1	引きまくり
好色一代女	1		まくりあげて
男色大鑑	1		まくりあげ
武道伝来記	1		まくりたてて
新可笑記		1	吹きまくり
博多少女郎波枕	1		まくりかけ
薩摩歌	1		まくりあげ

작품명	전항동사	후항동사	형태
曾根崎心中	1		まくり出して
大経師昔歴	1		まくりあげて
用明天王職人鑑	1		まくりあげ
けいせい反魂香	1		まかりかかひば
平家女護島	1		まかり切り
国性爺合戦		1	撫でまくる
双蝶蝶曲輪日記		1	引きまくり
		1	切りまくり
	1		まくり切り
碁太平記白石噺		1	引きまくる
滑稽本	1		まくり上て
しりうごと	1		まくりあげて
狂歌		1	吹きまくる

본 조사를 통해「まくる」의 初出로 볼 수 있는 것은 『枕草子』의 용례로, 후항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다음의 예문이라 할 수 있다.

(3) 指貫の腰こそそとかはは結び、直衣、うへの衣も、狩衣も、袖かいまくりて、よるとさし入れ、帯いとしたたかに結び果てて、ついゐて、烏帽子の緒きと強げに結び入れて、かい据うる音して、扇、畳紙など昨夜枕上におきしかど、 (枕草子 第61段)

이것은 平安時代부터 「まくる」가 복합동사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전항동사인 「かい」의 경우 접두어적인 성격이 강하여 「かいまくる」의 경우 본동사인 「まくる」와 크게 다른 용법을 지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례(4)와 같이 『万葉集』의 「第19卷」에 기록되어 있는 「さしまくる」의 형태도 추출되었으나, 해당 어구는 「과견하다」라는 의미의 「差し巻く」의 연체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초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梓弓未振り起し 投矢持ち 千尋射渡し 剣大刀 腰に取り佩き あしひきの 八つ 峰踏み越え
さしまくる 心障らず 後の世の 語り継ぐべく 名を立つべしも (万葉集 第19卷)

다음으로 추출된 용례는 전항동사에 사용되고 있는 「まくる」로, 1179年頃 성립의 『梁塵秘

抄』의 용례문이다. 용례(3)과 마찬가지로 본동사와의 의미적 相異는 적지만, 전향동사로도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 (5) 武者を好まば小胡籙 狩を好まば綾藺笠 捲り上げて 梓の真弓を肩に掛け 軍遊びをよ 軍神
(梁塵秘抄 272)

또한 현대 일본어의 「まくりあげる」는 본동사 「まくる」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まくる」의 경우 본동사와 전향동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는데, 『梁塵秘抄』의 이후의 용례문을 보면 현재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이상의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복합동사 「まくりあげる」의 경우, 平安時代부터 이미 이러한 용법으로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 (6) 片手に酔徳利・付木を持添へ、人の見るをもしらず、立ちながら紺のだいなしの褌をまくりあげて、逆手に 男の寿命を縮めさせたことをいう。 (好色一代女 496)

- (7) 大津までもといふところへ、林はたしなむ長刀。裾端折つてまくりあげ、奴殿動くまいと。縁端に躍り出でたるは、狂氣とならでは見えざりけり。 (薩摩歌 287)

「吹きまくる」는 1212年 성립의 『方丈記』²²⁾에서 추출되었다. 히메노의 분류에서 언급되기도 한 「吹きまくる」는 다른 복합동사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래 「まくる」와 결합하는 동사들이 대부분 사람의 의지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나 유일하게 자연현상과 결합된 특수한 복합동사이다. 이후, 1688년에 간행된 井原西鶴의 浮世草子인 『新可笑記』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너스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方丈記』의 용례문도 같은 뉘앙스를 보이는데, 현대 일본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합동사 「まくる」의 마이너스적 의미는 이미 13세기부터 정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8) 松本といへる宮の森陰に、都の夢を夢となし、鼾はなければ食はぬまでの二つ五器を楽しむ物は、火打ち箱に松風の音。時に編笠吹きまくり、面影を見れば、正しく田川の何某、左の方の額に向かう傷をしるし (新可笑記 608)

또한 軍記物에서 「まくる」가 다용되고 있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まくりたてる」

22) 주21과 동일하여 생략.

는 「はげしくおいたてる」로, 「おいまくる」는 「はげしくおいちらす」로 파악되는데 모두 강조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 용례는 다음과 같다.

(9) 大路へさと打ち出でて、雲霞の如くなる追手どもを木の葉を散らす嵐の如く、まくり立て
まくり立て、もしも主の判官や落ち延び玉ふと、 (太平記3 74)

(10) 仁木・細川、桃井勢一万余騎入り乱れ、白川を西へ、河原を東へ追ひ靡け追ひまくり、七、
八度が程相当りければ、打たるる者三百余人、疵を蒙る者数を知らず。 (太平記3 410)

마지막으로 『後万載』出典의 「狂歌」에서는 「吹きまくる」가 掛詞로 사용되는 용례로 나타나고 있었다.

(11) 吹きまくるすそ野の風に仙人もおつるばかりの白はぎの花

3.3 근대 자료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다음으로는 근대 자료인 「요미우리(読売)신문」과 종합잡지『태양(太陽)』을 중심으로 근대어 속에서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는 「요미우리신문」속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총 26용례로, 모두 후향동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근대 이전의 자료에서는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에 반해, 근대 이후에는 후향동사로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요미우리신문」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전향동사	후향동사	형태
1876年		1	借りまくる
		1	しゃべりまくる
		1	使いまくる
1877年		1	掘りまくり
1878年		1	しゃべりまくる
1881年		1	盗みまくる

	전항동사	후항동사	형태
1883년		1	逃げまくる
		1	盜みまくる
1886년		1	盜みまくる
1889년		1	切りまくる
		1	借りまくり
1890년		2	逃げまくる
1893년		1	借りまくる
		2	踊りまくる
1895년		2	盜みまくる
1897년		1	盜みまくる
1900년		1	盜みまくり
1901년		1	盜みまくる
1902년		1	稼ぎまくる
1906년		1	盜みまくり
1920년		1	追いまくる
1923년		1	ふきまくる
1924년		1	斬りまくる

채집된 용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표현은 용례(15)와 같이 사용된 「盜みまくる」이다. 문장 속에서 모두 마이너스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용법들의 증가를 통해 복합동사「まくる」가 현대적 용법으로 정착되어 갔음을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다. 주요 용례는 다음과 같다.

(12) 妻の家族引き取った男が借金苦で逐電 義母が債券所持と偽り借りまくる。 [1876年8月5日]

(13) 埋藏金の遺言に荒れ地を掘りまくり、結局残った広い田畑が宝物 [1877年3月14日]

(14) 京都の奠都祭 踊りまくる住民に大阪の冬物仕入れ呉服商ら迷惑、縮緬類が高騰 [1893年9月12日]

(15) 監視中の窃盗犯が逃走、手当たり次第490円余盜みまくる、吉原へ、 [1901年7月30日]

(16) 特許代理人になりすまして印鑑偽造、出願手数料を稼ぎまくる。 [1902年10月30日]

다음으로 종합잡지『태양』에서의 복합동사 「まくる」의 양상을 살펴보자. 용례 수집 결과, 이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4> 『太陽』에 나타난 「まくる」의 양상

	전향동사	후향동사	형태
1895年	1		まくり上げて
1901年	1		まくり上げて
	1		捲上げて
1909年		1	吹きまくる
1917年		1	吹き捲くる
		1	吹きまくる
1925年		1	まくりあげた
		1	追いまくり
		1	吹きまくる

『태양』에서 나타난 복합동사 「まくる」는 전기와 후기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뉜다. 전기에는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집중되어 있으며 수집된 용례는 모두 「まくりあげる」이다.

(17) 文晷は臆したる色も無く、その屏風を引倒して、堆きまでの金粉を墨汁ためたる大に投入せ、腕を高くまくり上げて、大なる刷毛をそこに浸し、それを打振りて一わたり雲耶山耶も判かぬ隈取をなしぬ。 [1895年]

(18) 椽に花菴どかりと大胡座で、湯上りの浴衣の袖を捲上げて、しつとり打水をした庭先をさも心持よきように眺めながら、服喫つた煙管の吸をとんと灰吹に拂いた。 [1901年]

후기로 갈수록 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증가하며 용례(19)(20)과 같이 「吹きまくる」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수한 용법으로 간주되었던 「吹きまくる」는 문학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되면서 정착해 가며 점차적으로 현재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요미우리 신문」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후향동사의 증가도 눈에 띄는데, 근대 이후 후향동사 「まくる」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 今では世界の風が處嫌はず吹き捲くる、國家が地球の表面を分割して領土から領海と其の繩張りを擴げてゆき、今日では空中までも領有權を及ぼして來たが、 [1917年]

- (20) 陸奥は、如才なくこれを種本にして、岩倉の面前で、滔々と五大洲恰かも掌中に在るが如く、吹きまくる。 [1925年]

4. 마치며

지금까지 동사 「まくる」가 복합동사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전, 고전 작품과 근대자료 속 용례문을 분석하였다. 본 고찰을 통해 얻은 특징적인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복합동사 「まくる」의 初出用例는 平安中期成立의 『枕草子』에서의 용법으로, 후향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에도시대 및 가마쿠라 시대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복합동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후향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②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는 1179年頃 성립의 『梁塵秘抄』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동사와 큰 의미차이는 없으며, 강조의 용법이라 할 수 있다.
- ③ 복합동사 「まくる」가 갖는 마이너스적 뉘앙스는 13세기경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현상과 관련한 단어와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 ④ 근대 이전의 자료에서는 「まくる」가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으며, 그 용법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용법들이 쇠퇴하고 「まくる」가 후향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또한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합동사 「まくる」가 후향동사적 성격이 강한 용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조사에서는 복합동사 「まくる」의 대략적인 전체상과 정착과정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금후에는 본 결과를 토대로 유사 복합동사들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개별 복합동사의 출현시기와 정착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參考文獻】

- 吳海蓮(2007) 「思惟行爲를 나타내는 複合動詞-古典語「思ひ」型 複合動詞와, 그 後-」 『일본문화연구』 24, pp.503-519

柴田武編(1976)『ことばの意味1』平凡社 pp.139-147
 徳本文(2013)「古典語複合動詞の後項「あふ」について」『立教大学日本文学』110, pp.194-204
 百留康晴(2000)「近世複合動詞の歴史的様相」『言語科学論集』第4号, pp.76-88
 姫野昌子(1999)『複合動詞の構造と意味用法』ひつじ書房, pp.207-222
 林翠芳(1996)「古典語複合動詞から現代語複合動詞へ」『同志社国文学』44, pp.13-24
 山田みどり(1991)「「書きまくる」の限界」『聖徳大学研究紀要』人文学部, pp.192-202
 이경수(2002)「복합동사와 본동사의 상관관계」『일본학』21,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pp.27-43

【사전류】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01)『日本国語大辞典』第2版, 小学館
 松村明編(2006)『大辞林』第3版, 三省堂
 小学館国語辞典編集部(2012)『大辞泉』小学館
 沖森卓也他(2010)『ベネッセ表現読解国語辞典, ベネッセコーポレーション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複合動詞에 관한 史的考察

- 「まぐる」를 中心으로 -

본 논문은 동사「まぐる」가 포함된 복합동사의 통시적 분석을 통해 당시의 사용 실태와 변천과정에 관하여 고찰한 것이다. 조사 결과, 복합동사「まぐる」의 初出用例는 平安中期成立의 『枕草子』에서의 용법으로, 후향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에도시대 및 가마쿠라 시대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복합동사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는 1179년頃 성립의 『梁塵秘抄』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동사와 큰 의미차이는 없으며, 강조의 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복합동사「まぐる」가 갖는 마이너스적 뉘앙스는 13세기경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자연현상과 관련한 단어와 결합하는 특징을 지닌다.

근대 이전의 자료에서는 「まぐる」가 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많으며, 그 용법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 이후가 되면 이러한 용법들이 쇠퇴하고 「まぐる」가 후향동사로 사용되는 것이 그 주류를 이루게 된다. 또한 다양한 어휘와 결합하여 후향동사로 사용되는 용례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복합동사 「まぐる」가 후향동사적 성격이 강한 용법으로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study on history of the compound verb

- Focus on 'makuru'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the process of compound verb 'makuru'. 'Makuru' is sued in the former form of the compound verb, like 'makuriageru' and the latter form of the compound verb, for example, 'tukaimakuru'. So the research was conducted on two types of compound verbs in various publishing, from classic literature to modern day newspaper and magazin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corded Japanese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makuru' first appeared in 'makuranosushi' which was published in the Heian era. There it was used as the latter form of the compound verb. The first ever appearance of the former form of compound verb was in the year Ryouzinhisyou 1179 and then it was originally used as the former form of the compound verb.

'Makuru' usually has a negative meaning and this meaning was set already in the 13th century. Mainly it was used to describe natural phenomenon, when combined with other words.

Also it was found that 'Makuru' was used often in Japanes classic texts as the former form of the compound verb. However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usage decreased and instead the latter form of the compound verb is used more frequently.